

-(으)ㄴ 때

~할 때 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

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. 미래 관형형에 ‘시간’을 뜻하는 명사 때가 결합한 형태이며, 시제는 어미 뒤가 아니라 안쪽에 들어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때	가다 → 갈 때
받침으로 끝남	-을 때	먹다 → 먹을 때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때
끝난 일	-았/었을 때	갔을 때
명사와 함께	명사 + 때	방학 때
함께 쓰지 않음	어제, 지금, 내일	어제 때는 없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, ㄴ 어간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. 만 들다는 다음이 됩니다: 만들 때.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는 상황에 씁니다: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세요.

한 번 끝난 일에는 과거가 안쪽에 들어갑니다: 한국에 갔을 때 김치를 먹었어요 (한국에 갔던 그때). 갈 때와 비교해 보세요. 갈 때는 가는 도중을 뜻합니다. 이렇게 시제가 어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-(으)ㄴ까요?, -(으)ㄴ 거예요와 같은 패턴입니다.

명사에는 조사 없이 때가 바로 붙습니다: 방학 때, 어릴 때, 시험 때. 하지만 이미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 — 어제, 지금, 내일 — 에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.

■ 예문

- 1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세요.
- 2 한국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어요.
- 3 시간이 있을 때 연락 주세요.
- 4 어릴 때 부산에 살았어요.
- 5 김치를 만들 때 손이 많이 가요.
- 6 방학 때 여행을 가려고 해요.

■ 비교

-(으)면
-(으)ㄴ 때는 실제로 오는 시점을, -(으)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을 나타냅니다. 한 번의 과거 사건에는 -(으)ㄴ 때만 쓸 수 있습니다.
한국에 갔을 때 (갔던 그때) / 한국에 가면 (간다면)

-(으)면서
-(으)면서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을 나타내고, -(으)ㄴ 때는 시점만 짚어 주므로 주어가 달라도 됩니다.
밥을 먹으면서 봐요. (먹으면서 동시에 봄) / 제가 밥을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. (먹는 중에 전화가 옴)

-는 동안
-는 동안은 시간의 전체 길이를 강조하고, -(으)ㄴ 때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.
잘 때 (자는 그 시점) / 자는 동안 (자는 내내)

■ 주의

- ✗ 김치를 만들을 때 힘들어요.
○ 김치를 만들 때 힘들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수 있다와 같습니다.
- ✗ 작년에 한국에 갈 때 친구를 만났어요.
○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어요.
갈 때는 가는 도중을 뜻합니다. 다녀온 일에는 과거를 어미 안에 넣으세요.
- ✗ 어제 때 비가 왔어요.
○ 어제 비가 왔어요.
어제, 지금, 내일은 이미 시점을 나타내므로 때를 붙이지 않습니다. 방학, 시험 같은 명사에는 붙습니다.